

# 광주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 — 광주인민봉기 40년을 맞으며 —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어언 40년이 되어온다.

강산이 변했다는 10년이 네번이나 바뀌었지만 오늘도 겨레의 뇌리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우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 모습이 생생히 새겨져 있다.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이었다.

1979년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갔다.

그러나 외세의 막후조종 밑에 12.12속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군사파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누르며 사회전반에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일당은 모든 집회와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모든 대학들의 폐쇄,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10》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였다. 5.17파쇼폭거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독재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대 파쇼판악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지향에 5.17파쇼폭거로 도전해나선 군사파쇼들의 망동에 격분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8일 대중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민주정부 수립》, 《양기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다.

도시가 군사파쇼당의 폭압력에 의해 결점이 포위되고 무차별적인 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함없이 싸워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였다.

당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파쇼당 당이 감행한 살인만행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치명적인 만행이었다. 살인귀들은 곧바로 봉기자들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내동댕이쳤으며 쓰러진 시민들을 짐짝 끌듯 거리바닥으로 질질 끌고갔다. 지어

평화적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으며 직승기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짓도 하였다.

이로 하여 민주의 함성드높던 광주는 삼시에 인민들이 흘리는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

당시 세계의 언론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 《망령만이 배회하는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파쇼당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외세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밀부리쳐 뒤흔든 광주인민봉기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견결히 맞서싸우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굳센 기상을 시위하고 남조선인민운동을 더욱 즐기차게 떠밀어주는 기폭제로 되었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후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새 세기에 들어와 반미초월시위로 발전하였으며 수년전에는 남조선 전 지역적인 대중적초월항쟁으로 변저져 박근혜독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던 광주인민봉기자들의 넋원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의 어

러운 력사가 반복되고 있다. 봉기가 있는 후 40년이 되어오도록 광주대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살인자들이 머리를 쳐두고 거리를 활보하고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군사파쇼도당의 후예들이 정계무대에서 활개치면서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실현을 음모로 양으로 계속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패들이 《국회》에 국무보수론객을 끌어들이어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으로, 봉기희생자유가족들을 《중북파괴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들을 늘어놓아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낸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지난 4월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의 여편자는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라는 망언을 쫓겨 유가족들을 비

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살인공범집단이 아직도 제1야당형세를 하며 정치를 어지럽히고있으니 광주 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살인악마 전두환역도가 《회고록》이라는데서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못해 제가 《5.18의 희생자》인듯 뻔뻔스러운 너두리까지 늘어놓는 기이한 풍경도 펼쳐진것이다. 얼마전에도 인강법정인 전두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가하여 자기의 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다 못해 재판정간 끄덕끄덕 죄아 각계의 충우와 분노를 자아내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광주인민봉기 40년이 되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면서 투쟁열의를 드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는 한갓 지나간 력사속의 항쟁이 아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항쟁이고 그날의 투쟁정신은 지금도 살아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항쟁자들의 뜻과 념원을 되새기자!》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 40년을 맞으며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 등 5.18관련단체들은 항쟁열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있는 묘지에서 광주인민봉기 40년기념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그러나 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려있는 광주대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의 글씨체로 제작된 현판과 《현충탑현시비》를 바

른 시일안에 철거하고 《전사자》로 외표기되어있는 《계엄군》 사망자 20여명의 묘비를 시급히 정정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또한 5.18관련단체들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항쟁자들의 뜻과 념원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군부패당이 광주인민봉기 당시 대학살만행의 진

상을 가리우려고 1 000여명의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새로운 자료를 폭로하면서 주도자처벌과 언론탄압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고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은 《파렴치한 전두환은 력사의 죄인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계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주대학살범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주범인 전두환과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 광주학살주범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대학생진보연합이 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광주학살주범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에 대학생들이 앞장설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광주학살만행의 주범 전두환과 그 공범세력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역도가 유가족들과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회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선포문이 랑독되었다. 선포문은 민간인학살, 발

포명령, 직승기사격 등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사죄나 반성이 없는 살인자 전두환을 구속하는것은 광주봉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선포문은 주장하였다.

선포문은 국민의 뜻을 거

스르려는 광주학살주범 전두환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역도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행동에 대학생들이 앞장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포문광동이 끝난 후 최수복을 입은 전두환역도에게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항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1980년 5월)



광주의 투쟁정신을 이어 박근혜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여 대규모초월시위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2016년 11월)



광주학살주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2020년 5월)

# 무분별한 군사적망동

남조선군부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대결기도를 계속 드러내놓고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특공 3사단의 생방훈련,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사격, 반화학 등 각종 단독훈련을 연속 벌려놓고있다.

지난 6일에도 남조선군부는 많은 전투기들과 합선들을 내몰아 지난 시기 북남쟁방사이에서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서해 최대쟁쟁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왔다. 그리고는 합동연습의 목적이 《북의 화력 및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격퇴하는데 있다》고 떠들어댔다.

한편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밀리에 끌어들인데 이어 북군과 해군의 무력증강과 전투기술장비의 개발 및 실전배치놀음을 언론을 통해 공

개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살인무장장비개발과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오는 8월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기도도 드러내놓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반문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협약에 대한 전면위반이고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책동이 가득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군부의 흉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동족과 끝까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자는것이다.

불을 줄기는자는 불에 타 죽기마련이다. 제 죽음을 모르고 물밑부활명령하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 초래할것은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복됨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민주당과 국민주권련대, 민주인문시민연합, 《한국청년련대》를 비롯한 진보경향의 정당들과 각계층단체들은 련일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 당국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보수적폐청산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과거에 파쇼통치와 인권의 명령인 보수적폐청산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권선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은 《세월》호참사 6년을 계기로 각 지역들에서 기자회견, 성토모임 등을 가지고 《세월》호사건의 핵심증거물인 박근혜역도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살인주모자처벌, 진상조사방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있다.

이와 함께 5.18관련단체들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군부패당이 광주인민봉기 당시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가리우

추진하라는 민심의 반영이다.》고 하면서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각 지역들에서는 반보수련대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4.16련대》, 《국민주권련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군부패당이 광주인민봉기 당시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가리우

#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의지의 발현

기 위해 1 000여명의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새로운 자료들을 폭로하면서 주도자처벌과 언론탄압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고 있다. 《한겨레》, 《민중일보》, 《한겨레》, 《민중일보》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악성전염병사태까지 정

결, 반인민적악당과 파쇼통치로 천추에 씻을수 없는 대죄악을 저지른 회세의 범죄집단, 강대무리인 보수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하려는 남조선민심의 결연한 의지의 발현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을 개, 폐지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 파쇼공안탄압을 들먹이온 보수세력들에 대한 각계층의 원한

과 분노는 지금도 가슴에 사무쳐있다. 광주인민봉기자들을 《폭도》로 모독하고 《세월》호참사를 한갓 《교통사고》라고 떠들며 유가족들을 《시제장사군》으로 모독하는 보수적폐무리들이 그 진상과 처벌이

는 팔죽같은 눈물을 떨구며 속죄하는듯이 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며 《보수세력》과 《정권탈환》을 획책하고있는것이 바로 보수세력들이다.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적폐청산투쟁의 고비를 순간이라도 늦추는것은 설맛고 되살아난 독사무리와 같은 보수세력들에 의해 초불항쟁의 성과를 지켜낼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의 파멸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반성도 없이 범죄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미쳐달뛰는 보수역적무리들을 력사의 오물통에 영영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제주 4.3특별법》개정을 요구

남조선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요구하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 4.3인민봉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시기 정쟁에만 몰두하는 20대국회를 바라보는 4.3희생자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대해 방기하는 처사는 또 다른 인권의 유린이며 대의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 진상은 덮어 버릴수 없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난 4월 중순 《세월》호참사 6년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남조선당국이 진상규명 《공약》을 전혀 리행하지 않고있다는것과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나설것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름동안 21만여명의 주민들이 찬물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기억과 책임 약속》이라는 주제의 기억식을 열고 각종 성명서들을 발표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것은 세인을 경악케 하는 특대형살인참극을 빚어낸 박근혜역도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인민적범죄를 끝까지 과체처 응당한 징벌을 안기려는 남조선민심의 분출이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도 박근혜 《정권》의 천인공노할 살인죄악은 흑막속에 묻혀있으며 범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다. 지어 이자들은 《세월》호참사는 《해안사고》, 《교통사고》일뿐이라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

으며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얼마전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라자는가 공개석상에서 《《세월》호참사는 교통사고라고 한 발언에 대해 생각이 바뀐적이 없다》는 망발을 하여 각계의 분노를 자아낸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진실을 외무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불한당이 정계이랑치고 버섯이 활개치고있으니 비극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초보적인 인문도덕도 상실한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계속 대못을 박고있는 보수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피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데는 현 집권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이다.

그들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일삼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불한당이 정계이랑치고 버섯이 활개치고있으니 비극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한일혁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 기자회견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